

C군의 B급 잡설, 영단어 어원탐구 Chapter - 18

글.
조인준 KBS 기술연구소 차장



별이 빛나는 밤 / 출처: Wikipedia

그다지 교양이 풍부하지 못한 일차원적 감성의 C군이지만, 11월이 되면 생각나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1889년 고흐가 자신의 귀를 자르고 요양원에 머물며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별빛과 구름과 밤하늘이 소용돌이처럼 뒤흔킨 이 그림이 왜 11월이 되면 C군의 마음에 자주 떠오르는 걸까요? 짧지 않은 불혹의 인생동안 모질고 무정한 삶의 굴곡을 헤매며 고흐가 그린 밤하늘만큼이나 아프게 굽은 주름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주름 사이 사이로 한때나마 별처럼 빛나던 삶의 순간들이 아릿하게 박혀있기 때문일까요?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약간의 ‘고독 코스프레’ 삼아 그렇다고 이야기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그다지 그럴싸한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별이 빛나는 밤’에 그려진 별이 11개라서 11월이 되면 숫자 ‘11’에 의한 매우 단세포적이며 일차적 연상작용에 의해 생각이 날 뿐입니다. 파면 팔수록 별거 없는 C군의 정신세계가 더 노출되기 전에 그림 이야기는 접고, 화가 ‘빈센트 반 고흐’로 이야기를 돌리겠습니다. 사실 ‘고흐’로 이야기를 돌려도 이름 빼고는 딱히 아는 것이 없는 C군의 정신세계 탓에 이름 이야기만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독자분들도 서양의 이름도 나름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빈센트 반 고흐’의 ‘빈센트’는 무슨 뜻일까요? 그림 이야기로 시작해서 굉장히 맥락 없는 전개이지만, C군의 연재에서 하루 이틀도 아닌 매번 있는 일이기 때문에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며 ‘빈센트’로 어원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Vincent

어원: 라틴어 vincere

(to conquer, to win)

서양 남자 이름 중에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자주 등장하는 Vincent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Vincent라는 이름은 라틴어로 ‘승리’나 ‘정복’을 뜻하는 ‘vincere’에서 왔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vincere’가 Vincent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vincere’에서 파생된 명사가 Vincent와 직접적인 연결을 갖지만, 한 다리만 건너면 ‘vincere’와 연결이 되고, 이후의 단어들과의 연관성도 고려해서 ‘vincere’에서 Vincent가 유래한 것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름의 유래에서 감이 오듯이 Vincent라는 이름에는 ‘승리자’, ‘정복자’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 바꾸면 남자는 승남(勝男), 여자는 승희(勝姬)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서양이름과 그 의미에 대한 적당량의 정보가 마련되면 서양 이름의 의미를 어원에 따라 설명하는 기회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Victor

어원 : 라틴어 vincere

(to conquer, to win)

지금은 해체된 과거 소련의 '빅토르 최(Viktor Tsoi)'라는 한국계 록가수를 아시는 독자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1990년 서른을 채우지 못하고 요절한 그의 소식이 국내 방송에도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방송에 그려진 그의 모습은 록음악을 통해 소련의 변화를 갈망하는 '청춘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빅토르, 비운의 쇼트트랙 영웅 안현수의 러시아 이름도 '빅토르 안(Viktor Ahn)'입니다. 이를 보면 러시아 등지에서 빅토르(Viktor)라는 이름이 꽤 흔한 이름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 빅토르(Viktor)와 어원이 같은 영어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Victor라는 이름입니다. 철자가 매우 유사하므로 누구나 다 같은 이름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ictor는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승리자', '정복자'라는 뜻의 단어로도 쓰입니다. 어원은 라틴어로 '승리'나 '정복'을 뜻하는 'vincere'입니다, Victor의 경우도 아주 직접적으로 'vincere'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vincere'에서 파생된 명사가 Victor와 직접적인 연결을 갖지만, 앞서 설명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vincere'에서 Victor가 유래한 것으로 설명하겠습니다.

Victory

어원 : 라틴어 vincere

(to conquer, to win)

지금도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응원구호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C군이 초당시절 응원구호 중에 "브이, 아이, 씨, 티, 오, 알, 와이~ 빅토리~ 압~~~" 이런 응원구호가 있었습니다. 구호의 앞뒤는 다 까먹어도 매우 인상적이었던 하이라이트 부분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브이, 아이, 씨, 티, 오, 알, 와이'가 '빅토리'의 철자인지 몰랐습니다. 그 심오함을 깨달은 것은 중학교에 입학하고도 한참이 지나서였습니다. 이를 깨닫는 순간 우주 탄생의 수수께끼를 풀어낸 듯 온몸이 떨리는 전율에 얼마나 무릎을 세계 내려쳤었는지... 그 이후 계속 무릎이 안 좋습니다. 80년대 초딩들도 모두 스펠링을 알고 있던 영단어 Victory의 어원도 라틴어로 '승리', '정복'을 뜻하는 'vincere'입니다.

Invincible

어원 : 라틴어 in-(not) +

vincibilis(conquerable)

vincibilis : vincere

(to conquer, to win)에서 유래

영국이나 미국의 전함 중에 Invincible이라는 이름을 가진 전함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전함의 급을 나타내는 용어로도 사용되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Invincible이라는 단어가 전함의 이름으로 사용된 단어다 보니 뭔가 강인하거나 무서운 느낌의 단어 같다는 느낌이 독자 여러분의 생각에 강하게 떠오를 겁니다. Invincible의 어원은 라틴어로 부정의 의미를 가진 접두사 'in-'과 '정복할 수 있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vincibilis'입니다. 'vincibilis'는 앞에서부터 계속 등장하고 있는 'vincere'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라틴어 어원을 종합하면 Invincible은 '정복할 수 없는' 정도로 해석되고,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대 영단어로서 Invincible이 갖는 뜻인 '무적의'가 됩니다. 가끔 격투기 선수들이 앞에 'the'를 붙여 추상명사화(the + 형용사 = 추상명사)하여 별명으로 쓰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무적의 파이터'라는 뜻이겠죠?

Convince

어원 : 라틴어 con-(with) +
vincere(to conquer, to win)

Convince는 영어 동사로 ‘~에게 확신시키다’, ‘~에게 납득시키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며, 어원은 ‘~와 함께(with)’ 정도의 의미를 갖는 라틴어 접두사 ‘con-’과 ‘승리’나 ‘정복’을 뜻하는 ‘vincere’입니다. 어원을 그대로 풀어보면 ‘승리와 함께’, ‘정복과 함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어원의 일차적 해석이 어떻게 현대 영어에서의 의미인 ‘~에게 확신시키다’, ‘~에게 납득시키다’와 연결이 될까요? C군의 심도(?)있는 조사결과 ‘논쟁’ 등에서 승리와 함께 따라오는 어떤 결과적 사건의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 하면 논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납득시키거나 확신을 주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는 않지만, 그런대로 의미는 연결이 되는 해석 같습니다.

Convict

어원 : 라틴어 con-(with) +
vincere(to conquer, to win)

Convict는 동사로 ‘~의 유죄를 증명하다’, ‘~의 유죄를 판결하다’의 뜻을 가지며, 명사로는 ‘기결수’, ‘재소자’를 의미하는 영단어입니다. 어원은 앞선 Convince와 같은 ‘~와 함께(with)’ 정도의 의미를 갖는 라틴어 접두사 ‘con-’과 ‘승리’나 ‘정복’을 뜻하는 ‘vincere’입니다. 어원은 Convince와 같지만 뜻은 매우 다릅니다. 하지만 Convince를 설명할 때 사용한 ‘논쟁 상황에서의 승리와 함께 따라오는 어떤 결과’에서 ‘논쟁’을 ‘재판’으로 바꾸어 ‘재판 등의 상황에서의 승리와 함께 따라오는 어떤 결과’라고 바꾸어 써 놓고 보면 Convict가 현대에서 갖는 의미인 ‘~의 유죄를 증명하다’, ‘기결수’라는 의미와 쉽게 연결이 됩니다. 너무 C군이 막 갖다 붙이는 것 같나요? 사실 저도 이 연재를 하면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100% 억지 같지는 않아서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곤 합니다.^^

Evict

어원 : 라틴어 e-(out) + vincere
(to conquer, to win)

Evict는 ‘쫓아내다’, ‘퇴거시키다’ 정도의 뜻을 갖는 영어 동사입니다. 어원은 라틴어로 ‘out’의 의미를 갖는 접두사 ‘e-’(접두사 ex-의 변화형)와 ‘승리’나 ‘정복’을 뜻하는 ‘vincere’입니다. Evict의 경우는 접두사 ‘e-’(ex-)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 같아 보입니다. 영어 전문가가 아닌 C군이 사전에 나온 ‘out’의 의미를 하나의 중심 이미지로 모아 보면 무언가가 결과적으로 ‘외부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C군의 이런 해석이 맞다면 Evict의 어원의 뜻은 ‘정복’이나 ‘승리’의 ‘결과’가 무언가 외부로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풀어보면 ‘정복’이나 ‘승리’ 뒤에는 원래의 주인을 ‘쫓아내’는 결과가 이어진다는 의미의 어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C군의 역량 부족으로 매끄럽지 못한 어원 풀이가 된 것 같은 점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vince

어원 : 라틴어 e-(out) + vincere
(to conquer, to win)

Evince는 영어 동사로 ‘~을 증명하다’, ‘~을 분명히 밝히다’ 정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어원은 라틴어로 ‘out’의 의미를 갖는 접두사 ‘e-’(접두사 ex-의 변화형)와 ‘승리’나 ‘정복’을 뜻하는 ‘vincere’입니다. 앞서 소개된 Evict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지만, 뜻은 180도 다릅니다. 하지만 Evict의 어원 풀이에서와 같이 어원 중의 하나인 ‘vincere’에 해당하는 ‘정복’이나 ‘승리’의 결과가 무언가 외부(e-)로 이어지는 맥락에서 풀어보면 ‘~을 증명하거나 분명히 밝히는 것’은 논쟁 등에서 ‘승리’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어원을 가지면서도 현대의 뜻은 180도 다르지만, 그 어원을 이리저리 따져보면 단어들 사이 서로 통하는 것도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Vanquish

어원 : 라틴어 vincere
(to conquer, to win)

Vanquish는 ‘~을 완파하다’, ‘~을 쳐부수다’라는 의미를 갖는 영어 동사입니다. ‘뱅크시(Vanquish)’하면 대부분의 007 팬들은 ‘본드카’로 유명한 ‘애스턴 마틴’이라는 영국 스포츠카 브랜드의 한 차종을 떠올립니다. 초대 ‘제임스 본드’인 ‘손 코너리’가 영화에서 멋지게 몰던 ‘애스턴 마틴’은 ‘DB5’라는 모델이었습니다. ‘DB5’의 ‘DB’는 ‘애스턴 마틴’의 옛 경영자(창업자 아님)인 ‘David Brown’의 머리글자입니다. 이 ‘DB5’ 이후 ‘제임스 본드’는 항상 아니지만 많은 경우 ‘애스턴 마틴’을 이용하게 됩니다. ‘뱅크시’라는 차가 ‘본드카’로 쓰인 것은 ‘피어스 브로스난’이 제6대 ‘제임스 본드’를 역임(?)하면서입니다. 하지만 초대 ‘제임스 본드’가 타던 ‘DB 시리즈’에 비해 ‘뱅크시’의 화제성은 크게 없었습니다. 아마 ‘막 쳐부수다’는 ‘강력’한 이름에 비해 성능이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옆길로 너무 이탈한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Vanquish의 어원은 라틴어로 ‘승리’나 ‘정복’을 뜻하는 ‘vincere’입니다. Vanquish도 ‘vincere’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된 것은 아니고 ‘vincere’에서 파생된 단어를 통해 한 다리 건너 파생되었지만, 그 뿌리는 ‘vincere’이므로 어원을 ‘vincere’로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Vanquish의 뜻은 어원의 뜻 그 자체입니다. ‘~을 완파하거나 쳐부수는 것’이 결국 ‘정복’이나 ‘승리’겠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2018년입니다. 모두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한 해 마무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P.S. C군의 잡설은 귀동냥에 근거하여 재구성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주세요. ☺